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AUGUST 2014



095
201408



3D 스펙터클러
spectacular 3D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LE MASQUE ET SON DOUBLE

가면과 그 이중

미술에서 등장하는 가면들은 언어적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다. 가면 그 자체가 독립적인 주체를 뿐만 책동하기도 하지만 흐레니 선거에서 가면이 가기를 더 그것을 인물 혹은 종족의 특정 캐릭터를 지향하여 직업에 서사성을 더해주는 때문이다.

폐회에 상관없이 가면이 등장하면 각인의 그물처럼 들어 올리는 이야기는 비교적 명확하게 도사리게 된다.

그렇게 가면과 연극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통적 전극에서부터 신현히 사용되어 온 장치이기 때문이다.

● 김해주 교수 / 노아미어



Paul McCarthy's *Tortoise Head* (2004), *The Great Exhibition*, *Richard Nixon* (2002), *Frogs* (1998), and 62 various objects by Paul McCarthy, 2, *Avantage*, 3, *Shit Kid*, 4, *Marceline and Arlene Strickland*, 5, *Tom van de Hora*, 6, *Lucas Schipperijn*, 7, *Armsende Bruegel*, 8, *Sabert Khan*, 9, *Sam Green*, 10, *Barney Boni VIII*, 11, *Vanja Vrdajić*, 12, *Jesus' Blood*, 13, *Blackout*, 14, *Pink Fridge*, 15, *White Rose*, Courtesy of Witte de With Contemporary Art

1



2



1. *Marina Abramović (Self)*, 2004. ©
The artist. Courtesy: Mourisco
Galerie, Amália, São Paulo, Andre
Moreira
2. *Paul McCarthy (That Girl
H.G. Ameri)*, 2012-13. © HD ERIC
Courtesy: Blum & Poe and Laser R.
Kahn Photo: Genevieve Hanson. ©

이 소비된다. 혹은 대중문화와 시술에서 발견해 여러 가지 창조 시점을 뿐만 아니라 창작에 페르시픽 작곡가들은 서 서사의 광활하고 단장을 넘은 면모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음악이 만물을 담았으나, 작들이 배움은 마치 서구가 사상과 철학을 살피듯 계체고, 시선과는 차별된다. 예술과는 무대 고교에 이어온 산이 미술본적 세계를 디자인과 조각과 같은 서재를 합쳤다. 또 속들의 세계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들판 푸드 조각들이 주연히 숨을 끄는 듯한 티피, 예전에 수 가이 텐센트나 엘자와 모히 전두와 권력을 끌어안고 대어는 우주를 탐험의 국가부터 시의 세계로 흘러나온 손전과 풍력을 염두한다. 신의 세계에서 풀려나온 드라마상이었던 인간의 가능성을 향유하는 순간은 그 자체로 축제처럼 축제처럼 하는 고수 중독한 기쁨을 쓰고 등장한다. 가면이 표하는 한 물결의 이면에 진한면 인간 존경을 감독하고 있다. 모든 아트의 현대성이 신의 힘

대는 머문적이긴 하다. 고대는 개인 속에 고미기와 디프니, 프드, 폴 데카스, 스타우의 하드코어(hard-core)로 멀어져야 남아야겠다는 그러나 공연이나 간접으로, 간접리에서 공연으로 작업의 광간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것, 그리고 공연에 사용되는 소품과 디자인이 전시와 작업으로 전환되기 항구의 혁신을 계기는 것에서 어떤 시기임을 찾을 수 있음가는 예술이다.

전통 연극에서 '일뚝'이라는 조선시대 경반은 통한 권고증을 토울는 서민화 독스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특히 팀은 하느의 사랑을 대변하는 바리타를 드러난다. 으적그의 사랑 연락에 통창하는 청수와 영희는 70~80년대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노상이나, 그래서 속 흔진 이름과 열광을 자아한 흔수와 공연가 퍼스에는 사랑은, 꿈과 결혼관 사회되는 거리가 같다. 거기는 누군가 그에 연결된 자신은의 진소를 떠글걸임과 맞닥뜨린 드라마를

구성하고 그 단 순간마다 우발로 걸리는 접수와 억제를 배운다. 운다. 극내가 피어오르 드라마로, 키드 청기 우주와 이쁜 사이의 속에 있는데 기억, 어려움이 솟아오르는 상호 충돌 등 작가는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로 날아오는 기억의 샘솟을 바탕화나, 미적법 철수와 영희를 통해 다시 마주하게 된 선연은 광재방식 충돌으로 대기모기도 하고, 유년의 그 역할 역시 아래 그림으로는 는 자신 트루가 광운할 만한 일종의 히어로 시기는 궁전 저 역할도 한다. 한편, 어른의 드라마 속 흔수와 연희의 커다란 명은 두고고 극장 사이의 부서 벽을 드러내는데, 꿈에 비친 오년히 커다란 단골이 각각의 어두운 정연들을 기울기 전통시키는 드라마를 헤아서는 몹시 세상이 커다란 것과는 무관하기로 인상을 강조한다.

그러자 이 대본이 광운 속에서 다른 시선을 보낸 적이 인드로 베구아(António Vieira)의 주근은 청진해 구현





1. Helmut Newton, Engagement of Diana & Nicole, Helmut Newton, 2009, from the Helmut Newton series Glamourama print, 52x43 cm, Courtesy of Ronald Feldman Fine Arts. 2. Paul McCarthy, DNA, 2010, Courtesy the artist and David Zwirner, Photo: Joshua White. 3. Alexander Gray, Kim, Holland, 2013, Antoni Golk, Van de Lerm, Linda Schilperoort, Annelieve Bruijne, Poulen Kleij, Sam Cremer, Fenna Elzen Veld, Annemarie Verkijl, Jesse Blok, Dick van Dijk, Phoebe Kaino Popp, Courtesy of Yvette de Zeeuw Center for Contemporary Art. 4. Andries Botha, Wool, 2005, Sculpture, wax figure, aluminum coated table and plastic, acrylic board, ceramic shoes, 150x100x30cm. 5. Andries Botha, Just Out of my room, 2005, Wood, wax, hair, fibro, lacquer, wax paint, bronze and lacquer, wax tail, 75x190x100cm. Figure and chair, 115x115x91cm.



둘 수 있는 가의 기자는 수지를 조형을 통해 드러내기, 이것은 종종 가증과 연결된다. 여기서 기준은 그것이 미는 것과 간단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면대고 리로 사용된다. 죽기는 등신다의 흐스 소행을 상상하고, 그 세상이 하나의 매우처럼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이 행정을 통해 죽기 스스로는 행할 수도 있고, 살려르는 자신을 불안하게 할 만한 꿈틀을 끌어내기를 원한다. 그것도 자증하는 것은 원칙의 사천이 불가능한 개요리 상된다. 그의 증정의 표면은 외부 세계를 단체 면밀하게 열려 있거나 그 자체가 높이 치운은 복잡한 수리 시스템을 드러낸다. 실제 사람을 본 그 만든 2016년 작품 'Sneakers 10'은 대개 미니 두각선 둥근한 나비날 위에 금리있은 쇠*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른 사과로 열술을 가득은 소녀와 함께 하늘은 사파와 모スク와 우화의 힌트가 중시돼 떠나온다. 헤이퍼 러플리컬식의 나방 대신 인형*이라는 생체성을 세구적으로 드레이는 그림 나시나 절대 부분이 노동도에 있고 머리 뒤쪽에는 페리 그린이 걸려 있다. 이전과 이후의 상대가 전통은 조현은 결국 나를 구습을 한 인형이 그로티스크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는 둘기능성, 즉 주관적인 경험과 그 역할에 어느와 소통이 수 있고, 세부적인 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죽기 자신이 직접 작품에 등장하는 대로, 자신의 대체 들인 인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트 쓰게(Geert

Fischli)의 16년의 영상 작품 'This Is Not a Film for Dreaming'은 꿈 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충격이라는 것과 노동과 삶쁨에 대한 고민을 위에 자신의 노동을 미리오너트를 이용하다. 작품과 의회 같은 공간이 내는 주의의 드시체를 바탕으로, 영상작업 같은 또 다른 언동국이 충전되어 색지 구조의 형식을 띠는 그 작품은, 내용으로도 자신의 이야기에 또 다른 인물은 이야기를 중첩시킨 구조다. 피에르 위그는 미국의 존드 디 힐의 기면과 센터에서의 전시를 의뢰 받으면서 그 구조를 설명한 프랑스 전족가 르 고르귀시에(Le Gorgue)는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기관과 지도의 요구로 남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조작해야 했던 그의 우리는 역시 새 배운 기미 선을 두며 같은 워크 시신의 상황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그는 그는 승진을 상흔을 다루던 디자인은 세련된 두 대신 차운 파드드 코드워치어를 많은 인원을 충돌시키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 거리를 확보했다. 어느 그림이나 그림 속에 자신의 흔적 상황과 르 고르귀시에의 상황을 겹친다면 그림이 속성을 활동한다. 시기 동네나 준 챠팅이 자연스럽게 간들을 푸르게 뒤집을 것이다. 리 쇼상한 리도미니스트 거축기의 묵의 장면은 하반드라—제도를 대변하는 걸은 죽의 형상에서 작정된다. 마리아니트를 등근사법으로써 살아온 실제 사건들, 제도와 충의 사이의 관계를 다룬는데 고발자적 입장이 아니라 작업의 현대로 도출하면서 그 긴장감을 흐집어내는데 성공한다.

